

계란수급 안정화 대책

## 노계도태 정부의 단호한 대책 절실



김 종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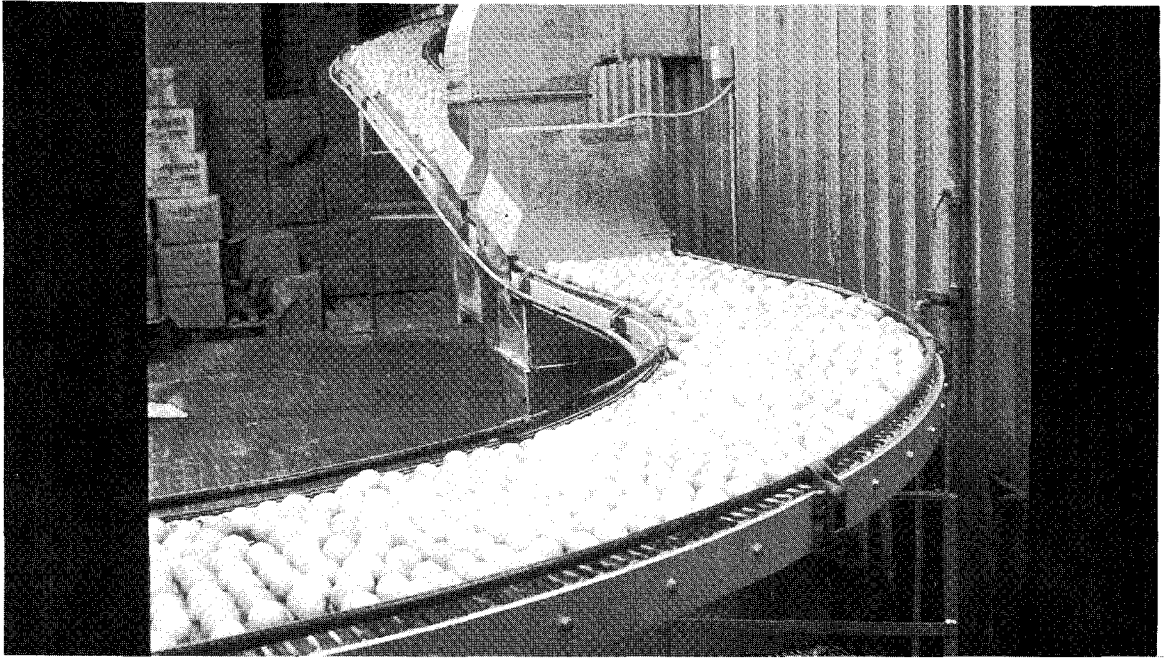
유동(주) 유동사업부 부장

**경**기의 계속되는 침체와 더불어 양계업계에 불어닥친 한파는 끝이 보이질 않고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은 어렵지만 하반기의 호경기를 점치며 마냥 행복한 장미빛 그림을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여름을 지나면서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하여 작금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의 늪에 빠져 있다. 그리고 깊어진 불황의 골만큼 양계인들의 이마의 주름살도 깊어만 가고 있다.

침체된 경기의 부양을 위하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시들어 버린 경기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 중 어디를 찾아봐도 양계업계의 불황타계를 위한 정책이나 부양책은 찾아볼 수가 없는 현실에서 업계 스스로 현재의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불황의 원인을 찾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 1. 불황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로 있지만 양계산업의 불황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가정의 소비가 둔화되고 따라서 주부들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면서 식량뿐만이 아니라 가공용까지 소비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언론매체의 계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는 계란 소비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계란소비의 절대적 자리를 차지하던 학생들의 도시락 속의 계란후라이는 이제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소비는 급감하고 있지만 계란의 생산 숫자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노계의 증가 및 계란의 체화로 인한 신선도 저하 등으로 인한 계란의 품질저하도 계란소비를 감소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계란 소비량은 년 200여 개로 다른 선진국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1일 소비량이 2,500만개인데 반해 하루 생산량은 2,680만개(표1 참조)로 약 7%의 과잉 생산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과잉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노계도태의 지연, 그로 인한 강제환우 비율의 증가, 그리고 우수한 성능의 백신의 등장으로 인한 성계의 생존율 및 생산성의 향상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표1에서도 알 수 있듯이 IMF직후 35% 대이

던 환우계의 비율이 지금은 거의 배로 늘어났다는 사실은 우리의 경쟁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강제환우의 경우 생산성의 저하는 물론이고, 질병으로 인한 항생제의 남용 등으로 계란의 품질을 떨어트려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더 계란을 멀리 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여야 한다.

과거 불황만 닥치면 농가에서는 초생추의 공급과잉 때문이라고 부화장을 몰아세웠다. 그

표1. 산란 실용계 생산 잠재력      단위: 만수, 만개

구분	수수	생산량	비고
초생추	4,310	18개월간 분양수수	
성계수수	2,930	생존율 92%	
환우계	793	환우비율 60%	
생산가담수	3,723	2,680	산란율 72%

※ 닭의 일생을 76주로 환산하여 계산

러나 2003년 들어 부화업계가 불황의 한파 속에서 가장 먼저 정리되어 난립해 있던 업체가 5개 업체만이 남아 있고, 종계입식 및 초생추의 생산수준도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어 이제는 불황을 그들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표2)

표2. 종계 및 초생추 생산현황 단위:천수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추정)
종계입식	598	498	406
초추생산	30,634	30,650	26,866

표2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2001년 이후 종계입식이나 초생추의 생산은 급격히 줄어들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 초생추의 숫자가 약 20%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한 이면에는 앞에서 말한 강제환우의 비율이 높아진 점과, 생산성의 향상에 원인이 있다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육추사료 및 산란사료의 생산실적에서 잘 나타나 주고 있다. 2003년 들어 육추사료의 경우 8월까지 전년대비 13% 감소한 반면, 산란사료의 경우 8월까지 전년대비 100%로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 만큼 강제환우의 숫자가 많아졌다

표3. 2003년 육추사료 생산실적 단위:천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02년	27	25	27	30	32	30	29	27
03년	25	22	23	24	26	26	26	23
%	94	91	89	87	96	96	87	87

표4. 2003년 산란사료 생산실적 단위:천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02년	164	140	155	153	155	141	140	148
03년	160	136	158	157	157	141	147	143
%	98	97	102	103	101	100	105	97

는 것을 알 수 있다.(표3, 4)

강제환우가 늘어나는 원인은 생산농가의 소규모 농가들의 경우 장기간의 불황으로 인한 경제력이 저하되면서 계군교체의 여력이 없어지고, 또한 노계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강제환우를 실시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심지어는 2차환우를 하거나, 미환우 도태계를 입식 환우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현재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이런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채란업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언제까지나 경기 탓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업계 스스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할 각오로 단결하여 이 위기를 타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 2. 불황의 끝은 어디인가?

채란계의 경우 그 특성상 종계의 입식에서 노계의 도태까지 한 줄기로 연결되어 있어 채란계의 불황이 증추장 및 부화장의 부실로 이어져 산란계 전체의 기반을 흔들어 놓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이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생산농가 및 부화장 등 업계의 모든 종사자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할 때이다.

생산농가에서는 현재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강제환우를 자제하고, 도태계가 환우계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농장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장 눈앞의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정작 미래를 망치는 우는 범하지 말아

야 할 것이다.

노계도태의 경우는 정부의 단호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이 없는 단발적인 도계장에 대한 지원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나서야 한다. 특히 현재 업계 일각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계를 이용한 가공식품의 개발, 렌더링을 통한 사료화 또는 퇴비화를 서둘러 연구해야 할 때가 아니냐 한다.

또한 계란소비 촉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예전의 단순한 영양식품의 개념에서 벗어나, 계란이 고객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식품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도 일부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시중에 나와있는 일반란과 영양란 및 기능란들의 차이점을 느낄 수 없다고 말한다. 업체는 이러한 고객들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일반계란과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보다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계란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영양식품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해야 할 것이다.

### 3. 계란유통 구조의 문제점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은 유통을 가지고 있는 일부 농장과 집하장을 통해 출하를 하는 농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장이 도소매 상인을 통하여 계란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계란가격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별로 별도의 가격을 발표하고

생산자와 유통연합회에서 각각 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작년 11월의 가격 현실화를 목적으로 생산자 가격을 발표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시행 초기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가격이 서로 상이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상인이 지방의 계란을 구매할 경우 서로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농가와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어려운 점이 따르더라도 전국의 계란 가격의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농장에서 상인과의 가격에 따른 마찰을 없애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로부터 계란은 아주 귀한 음식으로 취급되어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계란이 아주 천덕꾸러기처럼 되어 버린 현실이 업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각종 행사의 증정품으로 또는 대형 할인점들의 할인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 있다. 즉 계란이 미끼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락한 계란의 현 주소를 원래의 위치로 되돌리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해 줄 사람이 없다. 우리 스스로가 계란을 소중히 생각하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계란을 생산, 공급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는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소비를 촉진시켜 어려움에 처해있는 양계산업이 다시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양계**